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귄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 | 11/6 | 11/13 | 11/20 | 11/27 |
|---------|-----------------------|---------------------|---------------------|---------------------|
| 헬로우십 다과 | 테이블 | 테이블 | 테이블 | 테이블 |
| 어린이 돌봄 | 최설아, 김윤진 / 노현주, 전해경 | 이은경, 조희정 / 이윤경, 이창열 | 장경림, 신윤선 / 유세정, 박나경 | 이새롬, 이미혜 / 박영미, 나찬미 |
| 주차 봉사 | 이호순/이형섭 | 임종화/황규섭 | 김동현/지종성 | 변상윤/Tom Flynn |
| 예배 안내 | 바마코 (11월) & 아테네 (12월) | | | |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 부부 목장 | | |
|-------|--------|-----------|
| 105도 | 정현균/기숙 | 금 8pm |
| 미앤 | 조유희/희정 | 금 7:30pm |
| 투르카나 | 이장춘/영주 | 미정 |
| IMAN | 나정우/찬미 | 금 7:30 pm |
| MK | 김민수/미숙 | 금 7:30 pm |
| 메나 | 홍영기/진영 | 금 6 pm |
| 라운 | 임종화/민디 | 금 7 pm |
| 바마코 | 변동준/미미 | 금 7 pm |
| 사하라 | 배성웅/은정 | 토 10 am |
| 스팍스 | 박진환/미희 | 주일 4pm |
| 우간다 | 유광현/연실 | 금 8pm |
| 레바논 | 김명제/은경 | 금 8pm |
| 미정 | 이광석/진희 | 미정 |
| 형제 목장 | | |
| 시리아 | 이청호 | 금 8pm |
| 자매 목장 | | |
| 사론 | 손국자 | 수 11 am |
| 미얀마 | 김하운 | 목 10am |
| 백향목 | 최영선 | 금 7 pm |
| 아테네 | 이미영 | 월 10am |
| 암만 | 황순옥 | 화 10:30am |
| 특별 목장 | | |
| 신장 | 조충훈 | -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 | | | |
|----------------------------|----------------------------------|--------------------------|-----------------------------|
|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 응답하는 예배 Responding in Worship | 살롬 공동체 Marked by Love | 변혁 공동체 Living the Gospel |
|----------------------------|----------------------------------|--------------------------|-----------------------------|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번역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Ethiopia에티오피아는 201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67점을 획득, 박해 순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박해 지수 61점에 22위였고, 에티오피아 기독교인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전보다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 종교: 기독교인 63%/ 무슬림 34%

- 인구: 99,465,819명 (2015)

- 박해정도: 18위 극심함

- 주 박해요소: 이슬람 극단주의, 독재정치, 교권주의

에티오피아 인구는 기독교인 63%와 무슬림 34%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르 주(Afar)와 소말리 주(Somali) 그리고 오로미아(Oromia) 등 지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이다. 지역적, 나아가 국가적으로 이슬람 과격주의 (또는 이슬람의 정치화)가 성행함에 따라 각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 극도로 취약해져 있다.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에티오피아 동부와 중남부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공공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폭력의 대상이 되는데, 이슬람 과격주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소말리아(Somalia)와 수단(Sudan)의 상황이 에티오피아에게 영향을 끼친다.

에티오피아 기독교 박해의 주된 원인은 4가지로 '이슬람 극단주의,' '교회의 오만함,' '전체주의적 편협성,' 그리고 '부족간 갈등'이다. 인구의 34%만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방, 국가 차원으로 갈수록 이슬람이 더 성행하게 된다. 게다가 수년 동안 EOC(에티오피아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를 떠나 다른 비전통적 교회를 찾는 교인들이나 EOC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또한 현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중국 정부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어 또 다른 학대의 양상이 생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와케페타라는 전통을 강조하는 문화가 에티오피아 전역에 성행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도외시하게 됐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고립되고 하층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기독교 혹은 비기독교의 지도자, 정부 관리, 대가족제, 대중, 부족 지도자 등이 에티오피아 기독교 박해를 추진하는 이들의 예로 할 수 있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와 무슬림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MBB 공동체를 비롯한 에티오피아 교회가 피해를 입거나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지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비전통적 교회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앞으로 에티오피아 교회가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할지 올바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세가지 유형의 기독교가 존재한다.

-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 에티오피안 정교회 기독교인이 전형적인 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는 박해의 원동력이 지닌 복잡성을 설명해 주는 한가지 요인이다. 이들은 박해당하기도 하지만 박해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로 정부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게 박해당하는데, 부족 중심 지역에서도 같은 압력을 받는다.

- **기독교 개종자:** 무슬림 출신 개종자(MBBs)를 포함하여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개종한 사람도 포함된다. 토속신앙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역시 포함된다. 에티오피아에서 개종은 여러 박해 요소 위험에 노출된다. 무슬림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에서 무슬림 출신 개종자는 주로 가족, 공동체, 지도자나 다른 종교지도자에게 박해당할 위험에 놓인다. 에티오피안 정교회 기독교인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주로 정교회 추종자들이 이들을 박해한다. 기독교 개종자는 모든 부분에서 정부에 박해를 받는다. 또한 종족간 적대감이 널리 퍼진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토착종교를 고수하려는 부류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을 과시하려는 무슬림에게 박해를 받는다.

- **비전통적인 개신교 교회:** 복음주의나 오순절파와 같은 교회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 교단이다. 이런 부류의 기독교인 역시 정부와 에티오피안 정교회 기독교인, 이슬람교에 심각한 박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교회는 다른 교단보다 교세가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영역으로 개종한 신자들이 반대를 흔하게 경험하고 있다. 무슬림 배경신자들(MBBs)에게 있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가족 영역:** 가정 안에서 박해는 흔한 일이다. 에티오피아 그리스 정교회(EOC) 신자가 아닌 경우, 무슬림과 정교회(EOC)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이슬람 학교에 다녀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가족의 신앙으로 인해 신자들의 자녀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역사회 영역:** 정교회(EOC) 신자들이 다수 거주 하는 지역에서 개신교들과 정교회를 떠난 신자들은 정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식구들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몇몇 지역에서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에게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나누어 갖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자들이 취업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 영역:** 국가차원에서 정부는 사회전반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노골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듯 하다. 표현과 유대의 자유금지를 목표로 하는 엄격한 시민사회법을 이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며, 나라 안에서 선교사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보안 및 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터뜨리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다루는데 있어 정부의 태만을 지적하는 보고서들도 있다.

***교회 영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등록에 관한 것으로 정부당국은 그리스 정교회 (EOC) 또는 무슬림의 등록에 관해서는 강요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정교회와 연계된 공무원들이 비 정교회 신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무슬림 다수 지역에서 박해 선동자들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발언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다수지역에서는 무슬림 출신 신자(MBBs)들이 이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생활하고 있다.

***폭력:** 위의 박해 패턴에서 살펴보았듯이, 작년과 비교해볼 때 폭력점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관련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한 현지 사역자의 보고에 의하면, 보고기간에 135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박해의 주 요인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교권주의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가 발생시킨 폭력이 대략 50%를 차지하고 교권주의가 나머지의 25%에 해당한다. 신자 세 명이 살해되었고 피해를 입은 교회가 여러 곳 발생하였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도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신자들은 집을 떠나거나 숨어 지내야만 했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2016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믿음의 삶'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헬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Willamette A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유정현 & 이미라 자매 @ 135번방)

2. 새가족 환영회 (11/12)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문의: 박정연 자매)
- 일시: 11월 12일 (토) 5pm
- 장소: 홍영기/홍진영 가정 자택

3.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호 (\$4/권)

11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헬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 온 교회

1. 담임 목회자 청빙

빌리지 담임 목회자 청빙 광고가 employment.vbconline.org에 게재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 링크를 보내셔서 지원을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transition@vbconline.org)

2.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이번 트랜지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뜻으로, 교회를 위해 좀 더 정기적인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5분이든 한시간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리더쉽과 사역과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강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하셔도 좋고, 퇴근길에 하셔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빌리지 공동체를 위해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격주 목요일 오후 7-8시에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차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3. 세계 선교 소식 이메일 신청 (globalupdate.vbconline.org)

앞으로 빌리지 세계 선교에 대한 최근 소식과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함께 해 주시기 초창드립니다. globalupdate.vbconline.org에서 싸인업 하시면 됩니다.
(문의: Leslie Erickson, leslie@vbconline.org)

4.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016-2017 시즌을 Rossini's opera, "The Barber of Seville"의 공연으로 시작합니다. 티켓은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은 티켓 한 장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의: www.beavertonsymphony.org)

- 일시: 11월 6일 (주일), 3pm
- 장소: 대에배당

5. 2017년 빌리지 가족 수양회 (8/8-13, 2017@ Nehalem Bay State Park)

빌리지 최대 야외행사로, 빌리지 다른 가족들과 교제하실 수 있는 빌리지 가족 수양회의 등록이 10/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교회 로비&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11/8까지 입니다. (문의: susanm@vbconline.org).

2016 헌금 업데이트

| | |
|--------------|-------------------|
| 10월 헌금 참여자 | 547 (잠재 참여자 900+) |
| 1-10월 예산 | \$2,694,261 |
| 1-10월 헌금 | \$2,361,757 |
| 매월 목표 금액 | \$269,426 |
| 10월 1-31일 헌금 | \$296,120 |

* 헌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헌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헌금 참여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헌금 참여자, 부부를 1헌금 참여자로 간주합니다.

| 빌리지 대출 | 이자율 |
|-------------|-------|
| \$5,225,218 | 2.95% |